전법 일기

JustBe 수행 패스와 수행 놀이터

홍대선원이 9월 6일 야심 차게 준비한 '수행 패스'를 론칭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수행 패스의 탄생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제가 마주했던 고민과 희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JustBe 홍대선원에서 프로그램 파트장 소임을 맡은 지 어느덧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명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상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유형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명상을 '특별한 사람들'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와는 거리가 먼 어려운 것이라고 여기는 분들입니다. 둘째는 혼자서는 명상을 꾸준히 이어나가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확신을 얻지 못해 헤매는 분들입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곤 했습니다. 명상이 삶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특별한 이벤트'나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삶 속에 명상이 좀 더 가볍고 단순하게, 마치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기를 바랐습니다. 헬스장 정기권을 구매해 운동하듯, 놀이공원에 가서 자유이용권을 끊듯, 넷플릭스를 구독해 좋아하는 콘텐츠를 마음껏 즐기듯, 명상도 그렇게 일상적인 활동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대단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고, 단순히 '잠시 편안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일회성 경험도 아니었으면 했습니다.

이런 고민의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수행 패스입니다. 수행 패스는 한마디로 '명상 자유이용권'입니다. 월 10만원으로 홍대선원의 모든 명상 프로그램에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민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자칫 선원이 너무 상업적으로 느껴질 수도, 반대로 홍대선원의 가치가 저평가될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튜브만 봐도 수많은 무료 명상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명상의 진입 장벽은 이미 낮아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홍대선원 역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과 공동체 운영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행 패스는 그런 고민에 대한 저의 대답 중 하나입니다.

온라인과 앱을 통해 명상을 접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이 주는 힘을 믿습니다. AI와 가상현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들은 직접 만나고 함께 호흡하며 서로의 떨림을 느끼는 경험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는 것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선원에 와서 명상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JustBe 홍대선원은 시작부터 '수행놀이터'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지 준한 스님께서 이곳을 만들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선원에 와서 수행을 놀이처럼 했으면 좋겠다는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원력에 힘을 더하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수행 패스를 통해 수행놀이터에 놀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송산하 JustBe 홍대선원 프로그램 파트장



김형중의 깨달음의 노래 ⑳ 영가 현각 선사의 증도가

중생의 이 몸이 바로 진리 법신이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絶學無爲閑道人)
망상을 없애지도 참마음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네(不除妄想不求眞)
무명의 실제 성품이 곧 부처의 참 성품(불성)이고(無明實性卽佛性)
허깨비같이 텅 빈 이 몸이 바로 진리의 법신이네(幻化空身卽法身)

영가(永嘉) 현각(玄覺, 665~713) 선사는 당나라 때 온주(溫州) 영가산 영가사에서 교화를 펼친 고승이다. 저서에 〈증도가〉와 〈영가집〉이 있는데, 선시가 간결하고 선의 요지가 잘 드러나 유명하여 중국, 한국, 일본의 선가에서 널리 독송되었다.

위의 선시는 〈증도가〉의 첫 번째에 나오는 오도송으로 시 전체의 내용을 아우르는 대표 시로 오도송의 절창이다.

'증도가(證道歌)'란 '깨달음의 노래' 즉, 오도송이란 뜻이다. 한시의 형식인 운율도 잘 맞아 불경의 게송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선시를 구사하고 있다.

육조 혜능 대사를 찾아가 깨달음을 인가받고, 하룻밤을 함께 자고 절을 떠나 '일각숙(一覺宿)'이란 별호를 얻었다. 깨달음에도 조사의 권위에도 집착하지 않는 무소주(無所住) 정신이 그의 가풍이다.

먼저 1·2구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깨달음을 얻은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지도 참마음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네"는 깨달음을 얻은 도인의 경계를 노래하고 있다.

불교 교학에서 수행이 완성되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경지 위치를 '절학(絶學)' 즉, '무학위(無學位)'라고 한다. 근본불교에서 수행 사과(四果)의 최종 단계가 무학위에 이르면 아라한과를 증득한다. 아라한은 탐욕·분노·어리석음, 즉, 삼독심의 불이 완전히 꺼진 열반의 경지를 체득한 수행의 최고 지위이다.

그러니 더 이상 수행할 것도 없는 공부를 다 마친 상태이다. 할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 되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면 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니 더 이상 깨달음을 구할 필요가 없다. 번뇌가 보리(깨달음)와 다르지 않고, 중생과 부처가 차별이 없다. 어머니의 마음은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조금 잘하고 못하는 것이 차별이 없이 모두가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망상을 없애지 말라"는 뜻이 우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구족하고 있으므로 선사들은 스스로 망상을 일으켜 오염시키지만 않으면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고 가르친다.

마조 선사는 "부처를 다른 데서 찾지 말라. 일상의 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평상심(平常心)이 곧 도이다"라고 설파했다. 일상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와 망념을 자각하는 알아차림이 깨달음이다. 평상심이란 번뇌 망상이 들끓는 마음이 아니라, 거기에 오염되지 않은 본래의 청정한 내 마음을 의미한다.

불성이 항상 청정하면 부처이고 깨달음이다. 청정한 불성대로만 살면 그대로 부처의 삶이다.

3·4구 "무명의 실제 성품이 곧 부처의 참 성품이고 허깨비같이 텅 빈 이 몸이 바로 진리의 법신이네"는 깨닫고 보면 중생의 어리석은 무명심과 불성이 다르지 않고, 중생신과 부처의 법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한 생각 돌이켜서 깨달으면 중생심이 부처의 마음이 되고[轉識開悟], 중생이 부처가 된다[魚變成龍].

극락과 지옥이 하늘과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마음속에 있다. 똑같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이고, 어떤 사람은 극락을 산다. 아귀의 마음으로 살면 지옥이고,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극락이다.

영가 대사는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몸이 그대로 부처의 법신이고 부처의 화신(化身)이다"라고 설하고 있다.

〈문화평론가〉

기자칼럼

불교도 '지식재산권' 개발에 관심을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 열풍이 식을 줄 모른다. OST '골든'과 '소다팝'은 여전히 빌보드 차트에서 장기집권 중이며, 싱어롱 상영회 밈들이 숏폼들을 채우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굿즈 브랜드 '뮷즈'에서 수년 전에 내놓은 '호작도 키링'도 케데헌의 '더피'와 '수지'를 닮았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케데헌은 명확히 '한국산'은 아니다. 제작은 일본계 기업 소니가, 배급·유통은 미국 OTT 넷플릭스가 맡았다. 이들은 한국과 한국 문화콘텐츠를 '원천 소스'로 막강한 자본과 인력을 들여 하나의 '문화 상품'을 만들어 냈다. 이 같은 지적 재산은 전적으로 소니와 넷플릭스가 소유하고 있다. '한국'과 '한국문화'는 문화적 소비 대상인 것이다.

최근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이하 IP)'에 대한 관심이 높다. IP는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연구결과 또는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 같은 IP들은 한 가지 소스로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변주되는 '원소스 멀티유즈(OSMU)'의 기본이 된다. 다양한 산업군에서 제대로 된 IP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불교는 유형과 무형에 거쳐 전통문화의 보고(寶庫)다. 이는 풍부한 원천 소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지만, 현재 불교계는 원천 소스를 보존·관리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원천 소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나아가 IP 형태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부족하다.

뮷즈 온라인스토어의 베스트 상품에는 석굴암을 무드등으로 제작한 '석굴암 조명등'이 있다. 매번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은 해당 상품은 2024년 공모전 입상작을 제품화 한 것으로 원천 소스를 통해 훌륭한 IP를 개발한 결과다.

불교의 유·무형 문화유산들에 내재된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이를 잘 활용해 대중에게 전하는 것도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과 같다. 클리셰 같은 수사지만 상기하길 바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신중일 편집국 부국장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삼산사
- 주 지 : 선행화 (이정남)
- 승 번 : 512-82-6541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대성리 47-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스님 법하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금암사
- 창 건 주 : 박영철
- 등록번호 : 274321-0029935
- 주 소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511-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사단법인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종단 공고 알림' MOU 제안

현대불교신문사는
귀 종단과 2025년 '종단 공고 알림'
업무협약을 통해 종단 활동을 홍보하는 데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의 이취임, 종도 모집, 종단 행사 공고 등
각종 공고를 많은 곳에 전하여 종단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탈종공고 접수